

강진, 패류피해 예산 확보 잔걸음

국회·환경부 방문 피해보상 요청
향후 추진방향 적극 설명 공감대
용역비 확보 등 모든 행정력 집중



유미자 강진 부군수와 강진군 공무원들이 최근 임이자 국회의원을 방문해 패류피해 보상을 위한 국비확보를 요청했다. /강진군 제공

강진군은 최근 강진만 패류갑소 피해 최종 용역 결과가 끝나자마자 예산 확보를 위한 발빠른 행보를 계속하고 있다.

유미자 부군수와 해양산림과 공무원들은 지난달 30일과 31일 국회와 환경부 등을 잇따라 방문해 패류피해 보상에 따른 용역 비용 등 국비 확보를 위한 관계자들을 만나 협조를 구했다.

국회에서는 지역구 국회의원 김승남 의원과 전해철 환노위 위원장, 노웅래 환노위 위원 및 임이자 간사와 국회 예결위 위원인 서정숙 위원을 만나 현재 어민들이 처해있는 실정과 향후 강진군의 추진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깊은 공감대를 형성하며 적극 돕겠다고 약속했다.

유미자 부군수는 “우선 피해보상금 산정을 위한 용역비 확보가 선결인 만큼 반드시 이번 정기 국회에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 환

노위 및 예결위 측과 긴밀히 공조하면서 필요한 자료 제공 등으로 국회 차원에서 예산 확보 위한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며 “군에서는 2011년 구성돼 가동했던 실무협의체도 지체없이 재가동하는 등 신속한 행정 절차를 밟아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또한, 환경부 수자원정책과를 방문해 이번 용역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환경부 차원에서 수자원공사와 적극 협

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강진원 군수도 “5년 전 수자원공사 측의 소극적인 동참에도 불구하고 군의 적극적인 참여로 패류 피해 보상 용역을 추진, 오늘에 이른 만큼 앞으로 피해 보상금 결정 용역비 등을 적기에 확보해 순조롭게 보상이 마무리되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강진=한태선 기자

SRF열병합발전소 시민 설명회 5일 개최

나주문예회관, 분야별 전문가 참석

나주시가 시민과의 열린 소통을 통해 지난 수년간 지속돼온 ‘나주 SRF열병합발전소’ 현안 문제에 대한 합리적 대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나주시는 오는 5일 오후 3시부터 문화예술회관에서 ‘SRF열병합발전소 현안 해결을 위한 시민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6월 30일 한국지역난방공사가 나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사업개시신고

수거거분 취소 소송’ 대법원 상고심 판결 이후 SRF발전소가동이 현실화되면서 이에 따른 향후 대응 방안을 시민들과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된다.

시는 특히 발전소가동으로 건강권 확보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그간 행정 행위, 법적 소송 등 주요 경과에 대해 자세히 밝힐 예정이다.

또한 법률·환경분야 전문가가 제시하는 객관적 자료를 근거로 시민의 건강권, 환경권 수

호를 중점에 둔 향후 추진 방향을 제안·설명하고 현장 질의응답을 통해 합리적 대안 도출을 위한 시민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이날 설명회는 나주시의 ‘SRF 관련 주요경과 및 추진방향’ 설명에 이어 ‘SRF 관련 소송 결과 및 의미’ (법률), 환경 분야 ‘SRF 생산·소각 과정 및 사례 소개’ (환경) 등 분야 전문가 발표가 각각 진행된다.

설명회 이후에는 서면 질의서를 포함한 현장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다. /나주=이재순 기자

명량해상케이블카 1주년 맞이 이벤트 풍년

최근 많은 남도 여행객 중 필수 코스로 추천 받고 있는 명량해상케이블카가 9월 개장 1주년을 맞아 풍성한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어 다가오는 추석연휴 여행이나 가을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연인 또는 가족단위 여행객들에게 반가움을 전하고 있다.

명량해상케이블카는 지난해 9월 3일 개장했다. 이순신장군의 명량대첩 현장인 울돌목 해협을 운행하는 케이블카 시설로 많은 관광객 및 지역주민의 사랑을 받아왔고, 그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1주년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업체 측은 1일 밝혔다.

한달간 진행될 예정인 1주년 이벤트는 오는 12일까지 신분증 상 명량해상케이블카와 생일이 같은 9월 3일이 생일인 고객에 대해서 무료 탑승을 진행하며, 고객이름에 ‘명’, ‘량’, ‘해’, ‘상’이 들어가는 고객이라면 50%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또한 개장일인 9월 3일, 4일 추석연휴기간인 9월 9일부터 12일까지는 짝이 없는 100% 당첨 행운복권이 티켓 구매자들에게 제공된다. /해남=박병태 기자

영광불갑산 상사화 전국대학가요제 열린다

17일 개최...4일까지 신청

영광군은 제22회 영광불갑산상사화축제가 오는 16일부터 25일까지 ‘상사화 붉은 물결, 청춘의 사랑을 꽃피우다’를 주제로 불갑산 관광지 일원에서 열린다고 1일 밝혔다.

올해는 청춘의 사랑을 주제로 한 이번 축제 콘셉트에 맞게 젊은이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를 만들기 위해 17일 역대 최초로 상사화 전국대학가요제를 연다.

이번 대학가요제는 전국 대학교 재학생 및 휴학생 누구나 참가 가능하며, 개인 또는 팀으로 장르 불문 어느 곡이든 신청할 수 있다. 1차 심사는 온라인으로 제출된 음원, 동영상 파일로 이뤄지며 축제 기간 무대에 설 2차 본선 경연자

를 선발한다. 접수기간은 오는 4일 일요일까지이며 상사화 축제 홈페이지인 ‘상사화축제.com’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아 재학증명서와 함께 첨부해 전국대학가요제 게시판에 신청하면 된다. 추가로 1차 심사용 음원, 동영상 파일의 경우 이메일(rkdehdtjr6022@hanmail.net)로 반드시 함께 제출해야 한다.

상금은 금상 1팀 300만 원, 은상 2팀 각 100만 원, 동상 2팀 각 50만 원이 돌아간다. 참가팀 전원에게 소정의 선물을 증정한다.

대학가요제 접수 관련 사항은 상사화축제 집행위원회(061-350-5269)로 문의하면 된다.

/영광=곽용순 기자



함평 어울림 커뮤니티센터 조감도. /함평군 제공

함평, 어울림 커뮤니티센터 ‘윤곽’

설계공모 선정...2024년 말 준공

함평군이 지역 기초생활 기반확충을 통해 함평읍 주민들의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어울림 커뮤니티센터’의 본격적인 밑그림 그리기에 돌입했다.

함평군은 1일 “건축분야 전문가 7명으로 구성된 함평군 어울림 커뮤니티센터 설계공모 심사위원회를 통해 최근 건축 설계공모 당선작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어울림 커뮤니티센터 건립 사업은 문화·복지서비스 공간조성 및 함평읍사무소와의 복합화 추진으로 행정·문화·복지 등 일스톱 서비스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으로, 함평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군은 커뮤니티센터 건립을 통해 중심지 기능 강화와 더불어 배후마을과의 상생을 도모한다

는 방침이다. 설계공모에서는 ㈜세상종합건축사사무소·㈜아이에스피건축사사무소 공동 합작으로 출품한 작품이 선정됐다. 이 작품은 건축물 배치, 공간구성 등이 군 환경과 조화롭고 주변 시설과 연계성·친환경성 등에서 심사위원 모두에게 호평을 받았다.

사업비 207억원이 투입되는 어울림 커뮤니티센터는 함평읍 함평군청 옆 부지에 연면적 3,797㎡ 지하1층·지상2층 규모로 지하1층은 주차장 기계/전기실을 비롯해 지상1층은 함평읍사무소, 공동보육시설, 건강증진실 등이 들어선다. 지상2층은 공유주방, 대회의실 등 공용 공간으로 활용된다. 군은 설계 당선작 선정을 통해 내년 4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오는 2024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센터 착공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함평=윤예중 기자

클릭! 고향 속으로



장흥 쌍용석재산업, 이웃돕기 성금 기탁

추석 명절을 맞아 장흥군 회진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어려운 이웃을 위한 성금 기탁이 이어지고 있다. 장흥군회진면 쌍용석재산업(대표 최운옥·선재규)은 최근 회진면행정복지센터를 방문, 저소득가정 지원을 위해 성금 200만원을 기탁했다. 쌍용석재산업은 건설용 석재 채굴 및 세척 생산업을 운영하는 업체로

소외계층 지원을 위한 성금을 기탁하여 지역 주민의 복지를 위해 힘을 보태고 있다. 쌍용석재산업 최운옥·선재규 대표는 “다들 어려운 상황이지만 마음은 더욱 따뜻한 추석명절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활동을 통해 이웃사랑을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장흥=이옥현 기자



농협자산관리, 희망동행 사회공헌 활동

농협자산관리 광주전남지사(지사장 노병하)가 최근 영광 굴비골농협(조합장 김남철)과 함께 영광군 흥농읍에 산는 농업인에게 희망동행 프로젝트 사회공헌 활동을 펼쳤다고 1일 밝혔다. ‘농업인 희망동행 프로젝트’는 농업의 어려움으로 인해 과도한 채무를 지게 된 농업인들이 제기하는 것을

돕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농협자산관리회사의 사회공헌 활동이다. 해당 농업인은 오래전 영농실패로 과도한 채무가 발생해 부채를 정리하지 못하던 중, 농협자산관리에서의 농업인신용회복 컨설팅을 통해 채무를 감면 받아 재기의 발판을 마련했다. /우성진 기자



담양학생자치연합회, 2학기 준비 협의회

담양교육지원청 학교지원센터가 최근 담양학생자치연합회 중학교 위원 15명이 참여한 가운데 2학기 활동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협의의 해동문화예술촌 북카페에서 실시했다. 담양교육지원청은 담양학생자치연합회를 통해 학생 스스로 학교생활의 고민거리를 해결해 보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 이러한 경험이 학교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특히, 이번 협의회는 담양학생자치연합회에서 어떤 활동을 할 것인지 함께 고민해 보기 위해 마련됐다. 문시현 학생은 “앞으로 우리가 할 일을 직접 결정했다는 생각에 가슴 뿌듯한 시간이 됐다”고 말했다. /담양=정일남 기자